

수특 본책

1. 바빌로니아는 아무르인이 건설하였다. (p9)
2.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각 도시에는 수호신과 신전이 있었으며, 신전 행정의 수장은 도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했다. (p13 1번)
3. 인더스 문명은 드라비다 인이 건설하였다.(p13 1번)
4. 이집트 문명의 고왕국 시대의 정치적 중심은 수도 멤피스였으며, 이 무렵부터 바다로 진출하여 에게 해, 크레타섬, 시리아 연안 지방 등과 밀접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p13 2번)
5. 아리아 인이 인도에 정착한 초기에는 정복민과 피정복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주로 피부색에 기초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바르나(색깔)로 불렸으나 후기의 베다 사회로 갈수록 네가지 형태의 제도(카스트)로 정착되었다.(p14 3번)
6. 상 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정인이라는 점술가를 통해 신의 뜻을 물어 결정하였다.(p14 4번)
7.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부 시리아 해안에 위치한 현재의 레바논 지방에 시돈, 티루스, 베리투스 등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면서 연안 지방에 여러 도시(카르타고 등)를 건설하였다.(p15 2번)
8. 헤브라이는 셈계의 유목 민족으로, 시리아 남부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왕국을 건설하였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p15 2번)
9. 균수법은 중앙에서 거둬들인 지방 특산물은 값비싼 곳에 옮겨 팔아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재정 강화를 도모한 정책이다.(p19 날개)
10. 평준법은 중앙에서 각지의 물건을 쌀 때 사 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하고 재정 강화를 도모한 정책이다.(p19 날개)
11. 향거리선제는 한 대에 지방 장관이 여론을 참작하여 지방의 인재를 중앙에 천거하는 관리 선발 방식(=효렴)이다.(p19 날개)
12. 북위 효문제가 실시한 균전제는 15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노비와 소를 소유한 사람(소는 4마리까지로 제한)에게는 그 수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p20 날개)
13. 양세법은 8세기경 균전제가 붕괴되고 몰락 농민의 증가로 호구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안사의 난 이후 조용조를 대신해 실시된 수취 제도로, 자산에 따라 차이를 두어 1년에 2번, 여름과 가을에 징수하였다. 이는 명대에 일조편법 시행 이전까지 유지되었다.(p21 날개)
14. 시박사는 당대에 설치된 해상무역담당기구로, 송,원,명대를 거쳐 청대에 해관으로 대체되었다.(p21 날개)
15. 쇼토쿠 대자는 스이코 천황을 포획하여 섭정을 하며 관위 12계제와 17조 항목의 조문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노력하였다.(p25 8번)
16. 수의 고구려 침공 당시, 물자 공급의 책임자였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p28 5번, 동아시아사 선택자도 참고하세요)
17. 일본에서 벚꽃놀이는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례였다.(p29 5번)
18. 나라 시대의 <만엽집>에는 매화를 소재로 한 노래가 많았으나 헤이안 시대에 국풍문화가 발달하면서 벚꽃을 소재로 한 노래가 더 많아졌다.(p29 8번)
19. 지주전호제는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의 토지를 소작농인 전호가 경영하는 토지 경영 방식이다.(p30 날개)
20. 연운 16주는 5대 시기 석경당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울 때 거란에게 받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거란에게 할당해 준 지역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다.(p31 날개)
21. 색목인은 티베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등 서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몽골 제국에서 주로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p32 날개)
22. 파스파 문자는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티베트 불교 승려인 파스파

- 가 13세기 후반에 만들었다.(p32 날개)
23. 이갑제는 향촌을 리와 갑으로 편성한 제도로, 110호를 1리로 편성하고, 그중 부유한 10호를 이장호, 나머지 100호를 10갑으로 편성하였다. 매년 이장호 1호와 각 갑의 갑수호 1호가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였다.(p33 날개)
24. 금 건국 초기에 여러 부족민들은 별다른 요역은 없었지만 건강한 남자는 모두 병역을 이행하였다. 중앙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부락 추장인 패군에게 병사를 모으도록 하고 패군이 군대를 지휘하게 되면 맹안이나 모극 등으로 부른다.(p36 2번)
25. 일본 침략 당시 여·원 연합군은 동로군이라고도 불렸다.(p36 4번)
26. 왕안석은 <만언서>를 저술하였다.(p38 1번)
27. (북)송 진종 시기 쓰촨 지방에서 어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교자이다.(p38 2번)
28. “지원”은 원 쿠빌라이 칸 시기의 두 번째 연호이다. 첫 번째 연호는 중통이다.(p39 4번)
29. 에도 막부는 무가제법도(간에이령)라는 법령을 만들어 다이묘들을 통제하였다.(p41 8번)
30. 당 태종 시기의 연호는 “정관”이다. 당 태종의 통치 시기를 일컬어 “정관의 치”라고 한다.(p42 2번)
31. 명 태조 주원장(홍무제)는 본래 회유 지방의 평민이었다.(p43 3번)
3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p46 자료 플러스)
33.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왕의 길은 수도인 수사에서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길이다.(p46 날개)
34.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티(자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종교로, 광명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인 아리만이 대립한다.(p46 날개)
35.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에 불교와 그리스도교 등의 종교가 결합하여 성립된 종교로, 마니가 창시하였다.(p46 날개)
36. 헤지라(622)는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으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이다. 이슬람력의 시작 연도이다.(p47 날개)
37. 칼리프는 이슬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이다.(p47 날개)
38.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람, 즉 4대 칼리프 알리의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니파는 자질을 갖춘 이슬람교도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47 날개)
39. 술단은 칼리프로부터 지배 지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p48 날개)
40. 지즈야는 이슬람 왕조의 정복지역에서 정복지 주민들에게 신앙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거둔 인두세이다.(p48 날개)
41. 이슬람 상인은 삼각돛이 달린 다우선을 이용하여 항해 활동을 하였다.(p48 날개)
42. 사마르칸트는 오아시스 도시로서 사막길 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했고 티무르 왕조의 수도였다. “동방의 로마”라고도 불렸다.(p49 날개)
43.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로 예속 민족의 저항이 잦았다. 이집트가 독립하였고, 동부 이란고원에는 메디아 왕국이 세워졌으며, 소아시아에는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고 아시리아는 결국 칼데아인이 세운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했다.(p51 1번)
44. 다리우스 1세는 리디아 왕국의 주조 화폐를 본떠서 화폐제도를 마련하였고 페니키아인의 해상무역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포로인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피정복민의 전통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p51 2번)
45. 우마이야 왕조는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중국의 당과 접경하고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였다.(p51 4번)
46. 아바스 왕조는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와 알 마문 시대에 전성기를

- 맞이하였다.(p52 5번)
47.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과 지야드 이븐 살리흐의 이슬람군은 탈라스 강 근처의 아틀라흐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투 도중 당군 소속이었던 카를루크 유목민이 당을 배신하고 이슬람군으로 넘어갔고 결국 당군이 패배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 제지술이 전파되었다. (p52 5.6번 통합)
 48. 티무르는 서아시아를 목표로 소위 “7년 원정을 단행하였다. 아나톨리아 동부에 근거지를 둔 흑양부(카라 코윤루) 세력을 격파하고 시리아 지방을 차지했던 맘루크 왕조를 몰아내고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였다.(p52 7번)
 49.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을 함락시키고 스스로를 로마 제국 황제(카이세이 룸)로 칭하였다.(p52 8번)
 50. 아시리아는 본토를 직할지로 하고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속주제나 신종왕제를 적용하였다.(p53 1번)
 51.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은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설하였다.(p53 1번)
 52.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바흐란 1세는 마니교를 박해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로아스터교 사제장인 카르티르가 정치적인 힘을 키우게 되었다.(p53 21번)
 53. 625년 우후드 전투 이후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의 풍습이 생겨났다.(p54 3번)
 54.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카디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에 패배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야즈데게르드 3세는 지그로스 산맥의 나하반드에서 군대를 다시 소집했으나 다시 패하였다.(p54 4번)
 55. 티무르는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며 이집트, 시리아, 헤자즈 등의 지역을 얻었다. 또한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던 칼리프 알 무타와칼을 수도로 데려와 무함마드의 유품 등 여러 성물을 받았다.(p55 6번, p52 7번과 유사)
 56. 에프탈은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키스탄 일대를 지배한 민족이다.(p57 날개)
 57. 쿠트브 미나르는 델리술탄왕조의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며 세운 탑이다.(p57 날개)
 58. 마라타 동맹은 힌두교도인 마라타 족이 결성한 동맹으로, 인도 중북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p58 날개)
 59. 시크교는 나나크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만든 종교로,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등을 반대하고 유일신 신앙과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p58 날개)
 60. 아리아바타는 굽타 왕조 시대의 수학자로, 대수학과 기하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p62 4번)
 61. 메디나의 옛 이름은 야스리브였다.(p64 1번)
 62.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 카임 1세는 부와이 왕조를 몰아내기 위해 셀주크튀르크의 투그릴 베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p64 2번)
 63. 시크교는 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해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65 3번)
 64. 후마윤은 무굴 제국의 2대 황제로, 바부르의 아들이며 아크바르의 아버지이다.(p65 4번)
 65. 로마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노예공급이 감소하면서 라티퐁디움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토지를 분할·대여하여 경작하는 소작제가 나타났다.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을 이용한 농장경영을 콜로나투스라고 한다.(p71 날개)
 66. 스파르타는 시민에 비해 예속 농민(헤일로타이)과 반자유민(페리오이코이)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아고게를 통해 시민을 강력한 전사로 육성하였다.(p73 1번)
 67.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였다.(p73 4번)
 68. 알렉산드로스 대제는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 코린토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p74 5번)
 69. 알렉산드로스 대제는 오리엔트식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려 하였다.(p76 3번)
 70.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최대 1000유게라 이상의 공유지 점유를 제한하고, 빈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등의 개혁을 펼쳐 원로원의 반발을 받았다.(p76 4번)
 71. 훈족은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던 흉노의 한 일파로 알려져 있다.(p78 날개)
 72.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를 채택하였다.(p80 날개)
 73.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중에서 프랑크 왕국은 대이동 당시 원거주지로부터의 이동 거리가 짧아 오랫동안 변영을 누렸다.(p85 1번)
 74. 교황 레오 3세는 파스칼리스의 사주를 받은 자객에 의한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후 카롤루스 대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다(p87 1번)
 75. 길드의 형성 초기에는 수공업자들이 상인들이 형성한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하여 대상인들의 독점적 권한에 대항하였다.(p89 6번)
 76.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면벌부를 판매하였고, 이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p91 10번)
 77. 누에바 에스파냐는 에스파냐의 통치기간 동안의 멕시코 지역 등을 말한다.(p95 2번)
 78. 루이 14세는 전국에 지사를 파견하여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 지사는 주로 재정 문제를 담당하였는데, 정기적으로 관할 구역을 순회하면서 지방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p97 3번)
 79. 하비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주치의였다.(p98 날개)
 80. 쟈트리는 귀족과 자영농(요먼) 사이에 위치한 지주 계층이다. 16세기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농지와 황무지에 울타리를 쳐 방목지를 확대하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부르 축적하였다.(p100 날개)
 81. 심사법은 영국 국교도들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게 한 법이다.(p100 날개)
 82.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프랑스와 동맹을 맺자,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작센 지방에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p101 날개)
 83. 7년 전쟁에 참전한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와 북아메리카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고, 승리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광대한 영토를 받았으나 막대한 전비 사용으로 재정 위기를 겪었다.(p101 날개)
 84. 인지세는 각종 문서나 신문, 증서에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한 세금이다.(p101 날개)
 85. 삼부회는 14세기 초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처음 소집하였고 이후 국왕의 자문 기구로서 때로는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1614년 이래 중단되었다가 루이 16세에 의해 다시 소집되었다.(p102 날개)
 86. 유럽의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의 파급력을 막고 나폴레옹의 대륙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대프랑스 동맹을 체결하였다.(p103 날개)
 87.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의 틸지트와 에르푸르트에서 프로이센, 러시아와 강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대륙봉쇄령을 어기면서 러시아 원정이 단행되었다.(p106 8번)
 88.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쳤다.(p106 8번)
 89. 입법의회가 구성될 당시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회는 상설이며 단원제로 한다는 조항과 2년마다 새로운 선거로 조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p109 6번)
 90.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과 틸지트 조약을 맺었다(p110 8번, 87과 유사)

91. 데카브리스트는 “12월 당원”이라는 뜻으로, 12월에 거사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p111 날개)
92. 부패 선거구는 산업 혁명 당시 인구이동으로 유권자의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선출하던 선거구를 말한다.(p112 날개)
93. 영국의 곡물법은 국내 곡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다.(p112 날개)
94.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고자 프랑스와 프롱비에르 비밀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할 시 사르데냐 왕국은 북이탈리아를, 프랑스는 사부아를 얻기로 하였다.(p113 자료 플러스)
95. 러시아는 19세기에 중앙아시아 일대를 차지하였고, 청으로부터 헤이룽강 일대를 할양받았으며, 연해주와 сах알린도 차지하게 되었다.(p114 날개)
96. 선대제는 상인 자본가가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대가(임금)를 지불하고 거두어 가서 판매하는 제도이다.(p115 날개)
97. 매뉴팩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공장 등 한 장소에 모아 분업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장제 수공업을 뜻한다.(p115 날개)
98.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오언은 공장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아동 노동 금지, 교육과 주택 보급 등을 내세우며 협동촌을 건설하였다.(p115 날개)
99. 프랑스 7월 혁명 당시 파리 시민들은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항거하여 아르콜 다리를 건너 파리 시청으로 행진하였다.(p117 3번)
100. 7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설립된 임시 정부는 삼색기를 국기로 선포하였다.(p120 3번)
101. 사르데냐 왕국과 프랑스는 비밀 협정을 맺어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려 하였다.(p120 4번, 93번과 동일)
102. 사회 진화론은 사회학자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p126 날개)
103. 19세기에 들어서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내륙 지대를 탐험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신상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p126 자료 플러스)
104. 애로호 사건은 청의 관리가 밀수/해적 혐의가 있는 중국인 선원을 체포하기 위해 애로호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청의 관리가 영국 국기를 끌어내려 모독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이를 빌미로 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p128 날개)
105. 군벌 세력은 1912년 청이 멸망한 후 군사력을 기반으로 각 지방에 웅거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군인 세력을 말한다.(p129 날개)
106. 1906년 콜카타 대회에서 인도국민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나오로지는 연설을 통해 벵골 분할령을 비판하였다.(p131 자료 플러스)
107. 오스만 제국에서는 탄지마트를 통해 법률 제도 등을 개혁하였는데, 이를 통해 숃탄의 성문법이 점차 이슬람의 법체계인 샤리아의 상위 법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슬람 법을 중심으로 한 법원(法院) 조직도 탄지마트 이후 서구의 법 체계가 도입되면서 변화되었다.(p134 8번)
108. 단군왕은 청 도광제의 서자 재의이다.(p136 4번)
109.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막부의 굴욕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하여 불만이 많아졌고 이는 막부 타도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p138 7번)
110. 미일 화친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p138 8번)
111.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p139 9번)
112.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은 자르강 유역 탄광의 채굴권과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겼다.(p141 자료 플러스, 자작n제에 수록)
113. 롤릿법은 인도의 치안 상황과 대책을 조사한 롤릿의 보고서에 바탕을 둔 법으로 구속 영장 없는 체포, 체포를 거치지 않은 투옥 등으로 인도의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p142 날개)
114. 대공황으로 독일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나치당이 세력을 확대하여 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되었다.(p143 자료 플러스)
115.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농민에게 토지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즉각적인 전쟁 종결'을 구호로 <4월 테제>를 발표하였다.(p146 3번)
116.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인도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인도의 자치 허용을 약속하였지만 전쟁 말기에 이를 불허하고 롤릿법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였다.(p150 6번)
117. 일본은 1941년에 대동아성(大東亞省)을 조직하여 만주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주민에 대한 강제 동원을 강화하였다.(p151 8번)
118. 베를린 분할 점령 이후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독일 내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하자, 소련은 이에 반발하여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를 봉쇄하였다.(p156 날개)
119.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며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하는 동방 정책을 시행하였다.(p157 날개)
120.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할 당시 다수의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카슈미르 지역을 힌두교 중심의 인도로 편입시킨 것에 의해 카슈미르 분쟁이 일어났다.(p158 날개)
121. 마오쩌둥이 홍위병에 공산당 내의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당권파”를 끌어내는 것을 명령한 것으로 상황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홍위병 내부의 분파 사이에서도 무장 충돌이 일어나고 지방군이 한쪽에 가담하여 지방군과 주력군 사이의 마찰이 심해지자, 그는 결국 홍위병을 해체하였다.(p160 3번)
122.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의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다.(p162 3번)
123. 북위의 문성제는 “오랑개는 부처를 믿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승려 담요에게 석굴 조성을 명하였다.(p166 1번)
124. 청묘법은 농민에게 1년에 2번 대출해주고, 조세 납부 때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제도이다.(p166 2번)
125. 지역법은 자본이 적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상인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p166 2번)
126. 모역법은 역이 면제되어 온 관리, 사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어 역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정책이다.(p166 2번)
127. 한니발은 제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활약하였다.(p169 7번)
128. 다른 게르만 족들은 아리우스파로 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는 로마 가톨릭(=아타나시우스파)으로 개종하였다.(p169 8번)
129. 페리클레스는 해외 국유지를 분배하고, 축제 참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공공 봉사에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p171 2번)
130. 요 황실의 성씨는 야율이다.(p172 3번)
131. 오삼계는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청에 투항하였고 이자성을 몰아내는데 기여하여 청에 의해 평서왕으로 봉해졌고 상가희, 경중명과 함께 삼면으로 불렸다. 삼면의 세력이 강해지자 청 황실에서 삼면을 폐지하려 하자 오삼계는 후난성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p173 6번)
132.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

- 아 총독이 되어 근대적 군대를 창설하고, 학교와 공장을 세우는 등 일련의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이집트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철도와 전신을 설치하고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였다.(p175 9번)
133.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영국 사이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을 빼앗겼다.(p175 9번)
134. 진시황제는 진 장양왕의 아들로 13세에 왕위에 올랐다.(p181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
135. 현장은 인도의 날란다 사원에서 공부하였으며, 인도의 하르샤왕이 수도에서 학술 토론회를 열었을 때 주요 강사로 초빙되어 불교에 관한 토론을 하는 등 명성을 떨쳤다.(p181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
136. 백년 전쟁이 한창이던 1429년, 당시 프랑스 북부를 영국군과 영국에 협력한 부르고뉴파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왕위 계승도 샤를 왕세자에게 불리하였지만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p182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
137. 정화의 성은 마씨이고 어릴 때 이름은 삼보였으며, 원난성 출신의 무슬림이었다.(p182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
138. 쑨원은 1894년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조직하여 이듬해 광저우에서 최초로 거병하였으나 실패하였다.(p184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
139.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하였다.(p184 인물로 이해하는 세계사)